

마라 오늘은 힘들것이다. 내일은 더 힘들것이다. 그러나 모레는 그라운드 위에 서 있을것이다.



재활중인 KIA 외야수 김주찬(오른쪽)과 군제대 선수인 투수 박지훈이 2군 전용구장과 재활센터가 마련된 함평 챌린저스필드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재활...부활...사활

함평 챌린저스 필드, 스토브리그 열기 후끈

어깨수술 윤석민·종양제거 김주찬 등 훈련 집중

‘가을잔치’의 기쁨을 누렸던 KIA 타이거즈의 2016년이 끝나가고 있다. 비활동기간인 12월, 선수들의 2017시즌 준비는 이미 시작됐다.

함평 챌린저스 필드는 설레는 새 출발과 부활을 위한 무대였다.

비활동기간 선수들을 위해 선수들의 12월 야구장 출입이 전면 금지됐지만, 2군 전용 구장과 재활 센터가 자리한 함평 챌린저스 필드의 문은 활짝 열려있었다.

신인 선수와 군 제대 선수들의 훈련은 예외라 이곳에서 프로 선수의 꿈을 이룬 2017 신인 선수들과 박경태, 이경록, 박지훈, 이진경 등 군 제대 선수들이 훈련을 진행했다.

아마 시절에는 경험하지 못한 좋은 시설과 체계적인 프로그램 속에 ‘루키’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구슬땀을 흘렸다.

군복무를 마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새 출발선에 선 ‘예비역’들도 신인과 같은 마음이었다. 클립하우스에서 숙박을 하며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12월이었다.

최완 박경태는 “편하게 운동을 하기에 좋은 환경이었다. 숙소에 있다 보니 밤에도 일어서 운동을 하게 되더라”며 훈련 성과를 말했다.

‘특급’ 선수들도 눈에 띄었다. 재활을

하는 선수들이 챌린저스 필드를 찾아 2017 시즌을 준비했다.

어깨 수술을 받은 투수 윤석민과 왼쪽 허벅지 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외야수 김주찬이 챌린저스 필드에서 재활에 속도를 냈고, 역시 왼쪽 무릎 십자 인대 파열로 수술을 받았던 포수 백용환도 재활센터에서 건강한 복귀를 위한 걸음을 내디뎠다. 허리가 좋지 않아서 마무리 캠프에 참가하지 못했던 내야수 안치홍도 재활센터에서 시즌 준비를 했다.

따뜻한 해외를 전진기지로 삼아 12월을 보낸 선수들도 있다.

길고 험난했던 재활의 시간을 견디고 마운드로 돌아온 투수 한기주는 필리핀에서 완벽한 부활을 꿈꾸고 있다. ‘신입 호랑이’ 외야수 최형우도 캠프에서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다. 캠프에 잠시 다녀왔던 김주찬도 1월 다시 건너가 재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투수 김진우와 손영민은 오키나와에서 ‘조기 캠프’를 치를 예정이다.

또 모교와 대학 운동장, 피트니스 센

터, 무등산 등 곳곳이 선수들의 훈련 장소가 됐다. 특별한 관리와 감시도 없지만 선수들이 알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지난 2년 자율적인 훈련과 경쟁을 주문한 사령탑 김기태 감독의 리더십 속에 자리 싸움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선수들은 시즌처럼 치열하게 개인 훈련을 소화했다.

비시즌 개인 훈련 성과를 평가하던 체력테스트도 이번에는 시행하지 않을 방

프런트 조직 개편·인사...함평관리팀 신설

KIA 타이거즈가 오는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 및 경기 인사를 실시한다.

KIA는 지원실 산하에 있던 홍보팀을 운영실 산하로 이동하고, 지원실에는 2군 전용 구장인 함평 KIA 챌린저스필드를 관리하는 ‘함평관리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개편한다.

신설된 함평관리팀은 야구 관련 각종 시설과 재활시설 등을 관리하며 체계적

집이다. KIA는 김기태 감독 부임 이후 두 차례 체력 테스트를 진행했다. 스프링 캠프 명단 확정에 앞서 인바디검사, 윗몸일으키기, 유연성 검사 등 기초체력 검사와 4km러닝 테스트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번 겨울 체력 테스트 통보가 없었지만 선수들은 웨이트와 러닝 등을 하면서 김 감독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미 시작된 2017시즌. 경기장 개방이 허용되는 1월부터는 새 단장한 라커룸이 기다리는 챔피언스필드에서 ‘호랑이 군단’의 시즌 같은 비시즌이 흘러갈 예정이다.

/함평 글·사진=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선수 육성을 위한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함평관리팀은 이수수 차장이 맡는다.

이와 함께 홍보팀장 허권 차장을 부장으로 승진시킨다. 또 운영실 한근고 과장을 홍보팀으로, 육성지원팀 배경수 사원과 육성지원팀 임창현 사원은 각각 2군 매니저와 3군 매니저로 임명하는 보직 인사도 실시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현수 WBC 출전 쉬운 선택 아니다”

미국 언론 “두 번째 스프링캠프서 경쟁 선점해야”

내년 3월에 열리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출전에 대한 김현수(28·볼티모어 오리올스)의 고민을 대변하는 듯한 기사가 미국 현지에서 나왔다.

미국 볼티모어 지역 방송국인 ‘MASN’은 29일 “김현수의 WBC 출전 결정은 쉬운 선택이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현재 볼티모어에서 WBC 각 대표팀 로스터에 오른 선수는 김현수를 포함해 애덤 존스(미국), 마이클 기븐스(미국), 매니 마차도(도미니카공화국), 조나선 스콧(네덜란드) 등 5명이다.

마무리 잭 브리튼은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이유를 들어 미국 대표팀 승선 제안을 거절했다.

이 매체는 김현수와 기븐스의 출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김현수에 대해서는 “11월에 발표된 한국 대표팀 명단에 포함돼 있지만, 아직 참가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확실한 것은 없다”면서 쉬운 결정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현수는 국가를 대표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영광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는 미국에서 두 번째 시즌을 앞두고 스프링캠프 일정 전체를 소화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수는 타율 0.302, 6홈런, 22타점이라는 준수한 성적으로 올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올 초 스프링캠프에서는 극심한 부진 끝에 구단으로부터 마이너리그행 압박을 받았고,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개막전에서 홈팬들의 야유를 듣기도 했다. 볼티모어와 2년 계약 마지막 해인 내년 시즌은 김현수에게 더더욱 중요하다.

이 매체는 “김현수는 올해 좌투수를 상대로 18타수 무안타에 그쳤다. 그는 좌익수로서 수비력을 보완하는 동시에 플레툰 선수 이상임을 벅 쇼월터 감독에게 보여주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터치다운의 기쁨 2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산타 클라라의 레비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포스터 팜스 볼 인디아나 후시어스와 유타 유츠 경기에서 인디아나 후시어스 선수들이 터치다운 후 기쁨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테니스 정현·이덕희, 호주오픈서 힘찬 출발

2016년 한국테니스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다.

한국테니스 간판으로 성장한 정현(21·삼성증권 후원)은 성장통을 겪으며 한층 더 성숙했고, 이덕희(18·마포고)는 정각 장애를 딛고 선수로 기량을 꽃피운 한 해였다.

이제 정현과 이덕희는 부푼 가슴을 안고 정유년을 준비한다.

올해 51위로 시즌을 시작한 정현은 호주오픈 1라운드에서 세계 최강 노바크 조코비치(2위·세르비아)를 상대로 선전해 많은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정현은 슬럼프에 빠졌고, 한창 시즌이 진행 중임에도 부상 회복과 재정비를 선언했다. 그렇게 4개월의 시간을 보낸 정현은 복귀 이후 ATP 투어대회 대신 한 단계 낮은 챌린저 대회에 집중해 기초 닦기에 나섰

고, 두 차례 우승컵을 들어 올리고 104위로 올해를 마무리했다.

정현의 2017년 첫 번째 일정은 1월2일 인도 첸나이에서 시작하는 에어셀 첸나이 오픈(총상금 50만5730달러)이다.

정현은 첸나이 오픈 본선 직행 티켓은 얻지 못했고, 예선 대기 2번으로 본선 출전을 신장한 2명이 기관해야 본선에 직행한다. 이 대회가 끝난 뒤에는 16일부터 열릴 호주오픈(총상금 2262만4000호주달러) 출전을 위해 호주로 이동한다. 역시 예선 대기 3번으로 만약 본선에 직행하면 호주오픈에 앞서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리는 ASB 클래식(총상금 50만8360달러)에 출전하는 걸 검토 중이다.

이덕희는 올해를 잊을 수 없는 한 해로 만들었다.

퓨처스 대회 우승 3번을 더했고, 그보

다 한 단계 높은 챌린저 대회에서는 처음으로 결승까지 올라 정현과 맞대결 끝에 준우승을 했다. 올해 순위를 149위까지 끌어 올린 이덕희는 한국 선수 가운데 정현 바로 다음 자리까지 올라갔다. 귀가 들리지 않아 눈으로만 공을 쫓아야 하는 이덕희는 불리한 여건에도 성장세를 보여줬다.

이덕희의 2017년 첫 일정은 내년 1월 2일 시작할 뉴칼레도니아 챌린저(총상금 7만5000달러) 출전이다. 다음 목표는 호주오픈 본선 진출이다. 이덕희는 이달 초 중국 주하이에서 열린 호주오픈 본선 와일드카드전에서 준결승을 차지해 눈앞에서 직행 티켓을 놓쳤다. 대신 이덕희는 호주오픈 예선에 출전해 본선 티켓을 노린다.

/연합뉴스

세계 골프 랭킹 주인공은

골프 세계랭킹은 매주 발표되지만 12월 마지막 주 랭킹은 의미가 크다.

연말 세계랭킹은 이듬해 메이저대회와 월드골프챔피언십(WGC) 등 특급 대회 출전권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메이저와 WGC 등 상금이 많은 굵직한 대회 출전 자격은 세계랭킹으로 주어진다.

세계랭킹 50위는 골프에서 ‘귀족’과 ‘평민’을 가르는 기준이다. 세계랭킹 50위 이내에 진입하면 정상급 선수로 대우받는다는 얘기다.

유럽프로골프투어는 연말 세계랭킹에서 50위 이내에 진입한 선수는 고작 11명이라고 분석했다. 작년 19명보다 확 줄었다. 그만큼 세계랭킹 50위 이내의 벽은 높다.

세계랭킹은 최근 2년 동안 성적에 따라 매긴다. 그렇지만 최근 성적에는 가중치가 있다.

알렉스 노렌(스웨덴)은 올해 가장 빠른

데이, 불박이 1위

노렌, 87계단 상승

존슨, 포인트 최다

속도로 세계랭킹 10월에 진입했다. 그는 지난 연말 96위였지만 올해 4등을 올리면서 세계랭킹 9위로 올라섰다.

한국의 ‘영건’ 김시우(21), 왕정훈(21), 송영한(25)도 세계랭킹을 큰 폭으로 끌어 올렸다.

김시우는 272위에서 57위로 뛰어올랐고, ‘아프리카의 왕자’ 왕정훈은 169위에서 61위로 랭킹을 끌어올리는 눈부신 성장을 보였다. 송영한은 200위에서 78위로 올랐다. 하지만 이들은 아쉽게도 50위 이내 진입은 내년으로 미뤘다. 50위 이내에 유일한 한국 선수는 안병훈(24)이지만 1년 전 29위에서 46위로 하락해 50위에 간신히

히 잔류했다.

최근 석 달 동안 무서운 기세로 랭킹을 끌어올린 진짜 강자는 마쓰야마 히데키(일본)다. 그는 최근 출전한 6개 대회에서 5위, 우승, 준우승, 우승, 우승, 우승이라는 경이적인 성적을 올렸다. 지난 9월26일 투어챔피언십 종료 시점 세계랭킹 18위였던 마쓰야마는 연말 6위에 올라섰다.

3위 더스틴 존슨(미국)은 올해 한 해 가장 많은 랭킹 포인트를 획득했다. US오픈을 비롯해 3승을 따낸 존슨은 454.2포인트를 얻었다. 이는 세계랭킹 1위 제이슨 데이(호주)보다 69.9포인트가 더 많은 것이다. 데이는 작년에 워낙 성적이 좋았던데다 올해도 저지 않은 랭킹 포인트를 쌓아 세계랭킹 1위로 2017년을 맞게 됐다.

데이,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 존슨, 헨리크 스텐손(스웨덴), 조던 스피스(미국) 등 세계랭킹 ‘톱5’ 구성원이 어느 때보다 젊다는 점도 특별하다. ‘톱5’ 평균 연령은 불과 30.2세로 2003년 이후 가장 낮다.

/연합뉴스